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전공

Intellectual Property Major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는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의 창작, 기획 및 제작 그리고 유통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적재산권전공은 민법, 상법 등 기초 법학의 학습을 통하여 공무원, 공기업체, 자격증 시험, 금융과 증권, 부동산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 및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을 다룰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에 콘텐츠의 기획,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저작권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역량과 기술적 이해를 가진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적재산권전공 특성화 사업을 이끌어가는 전공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 사단법인 저작권 단체 등 관련 기관에 취업 하거나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파생된 기업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 기회가 있다. 또한, 법무법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현재 300개 정도 있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교육목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영화·음악·미술·공연 등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정책, 환경 등의 정립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전공은 산업 분야 및 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상법, 형법 등 기초 법학의 학습을 통한 리걸 마인드 (legal mind)의 형성 및 법학적 사고체계를 함양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공기업체, 로스쿨,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금융과 증권, 각종 자산관리,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업무 등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

학년	학기	전공 교과목
1	1	법학개론
	2	민법총칙, 상법총론
2	1	형사법, 저작권법1, 지적재산권개론, 물권법총론, 회사법1, 형법원론
	2	저작권법2, 특허법1, 상표법, 물권법각론, 회사법2, 게임과저작권, 전공영어
3	1	국제저작권법, 채권법총론, 어음수표법, 저작권침해와구제
	2	콘텐츠외법, 콘텐츠계약론, 음악저작물과저작권법, 채권법각론, 보험해상법
4	1	민사소송법
	2	지적재산권연습, 민법연습

CDR

(Career Development Roadmap)

CDR명	교육내용
자산관리 법무 전문가	• 물권법, 채권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유/무형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법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융합형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창의적/실질적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종 자산관리 분야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법률 지식을 갖추 수 있다. • 관련 교과목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1, 지적재산권개론 등
융합형 지적재산권 전문가	•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IT정보 기술의 전문가가 되어 그 흐름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융합형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관련 교과목 : 민사소송법, 형사법, 국제저작권법, 저작권침해와구제 등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가	• 우리나라 산업경제에서 콘텐츠의 역할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체 수만도 10만이 넘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는 부족하다. 현재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콘텐츠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관련 교과목 : 민사소송법, 국제저작권법, 저작권법1 등

CDR명	교육내용
전자상거래 법무 전문가	• 최근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등 상거래의 영역이 확대되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래환경 속에서, 상거래에 관한 기초법인 상법총론과 회사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이후,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 내지 대금 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 관련 교과목 : 저작권침해와구제, 저작권법1, 지적재산권개론 등

특성화 분야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연간 3억 원, 총 15억 원 지원
-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특성화 핵심교과 운영, 워크숍 및 특강, 현장 연계형 실습교과 운영)
- 특성화 우수학생 장학지원 확대(경력개발프로그램, 취업동아리, 특성화역량 우수학생 대상)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산학연계 취·창업프로그램 설계, 취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 현장 수요 중심의 교육(특성화 현장연계교육 및 실습, 해외견학 지원, 캡스톤디자인 교육 및 개발)
- 특성화 분야 학생 네트워킹 강화(진로 분야별 졸업생-재학생, 재학생 선후배 간 튜터링 지원)
- 전자칠판, 태블릿 PC 등 멀티미디어 실습실 장비 지원
- 특성화 비전에 맞는 실무와 경험을 가진 교수진의 확충
- 평생지도교수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학부생 진로관리 시스템 마련

취업/진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 방송미디어업체, 공공기관(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포털 및 플랫폼 사업체, 법무법인, 저작권신탁단체
법무법인, IT기업법무팀, 금융회사채권관리팀, 부동산관련 기업법무팀, 특허법률사무소, 일반로펌, 전자상거래 기획팀, 인터넷 마케팅 부서, 가맹거래사, 공무원, 공기업체, 노무사, 세무사, 금융기관, 은행 등

주요 취업처

- Mnet, Naver, Kakao, LG U+, KT, Bugs, Melon, 한국데이터진흥원, Twitter, T world, 우리은행, 리디북스, 대한출판문화협회, 뮤직카우, 특허법인
- (공무원, 법학계열) 경찰공무원, 검찰직공무원

기타

수상실적

- 2018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포터즈(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
- 2019년 한국저작권보호원 리포터즈 팀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
- 2019년 한국저작권보호원 리포터즈 개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
- 2019년 락앤락 그린케이트 최우수팀 수상
-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우수상(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수상
- 202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서포터즈 우수상(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수상
- 2019년 대흥기획 제 36회 DCA대학생광고대상(주식회사 대흥기획 대표이사) 수상
- 2021년 한국발명진흥회 아이디어로 서포터즈 “아이디어로즈 1기” 최우수상 수상
- 2021년 한국발명진흥회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2021년 한국발명진흥회 아이디어로 서포터즈 “아이디어로즈 2기” 장려상(발명진흥회장) 수상
- 2021년 한국발명진흥회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다제안상(발명진흥회장) 수상

선배 한마디



INTERVIEW | 21학번 유○민

지적재산권전공은 2009년에 전국 유일의 저작권보호학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법률 관련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법과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법, 상법, 형법과 같은 과목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 콘텐츠 관련 산업의 실무 및 동향을 알 수 있는 여러 전공 심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전공만의 전공 CDR 제도를 통하여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가, 융합형 지적재산권 전문가, 자산관리법무 전문가, 전자상거래 법무전문가 등의 CDR을 선택하여 자신의 진로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학술제를 통해 선배와의 만남과 관련 산업계 여러 인사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전공은 다양한 법률 과목을 배우는 특성상 정치와 법, 통합사회와 같은 사회과목과 밀접해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외국어 관련 과목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목에 흥미가 있으며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지적재산권전공을 추천합니다. 또한 상명대학교의 인재상인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에 걸맞은 인재라면 누구든지 지적재산권전공에 와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